순대국 편지, 그래서

김용택
시인

함박눈 내려요

순대 국 먹으러 가자고 하고 싶어요

꼭 순대 국이 먹고 싶은 건 아니구요

그냥 지금 몸이 좀 아프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

그러면 당신이 내 얼굴 보면서 걱정 해줄 테니까

그래서

어느 날 아침의 버드나무가지

김용택
시인

꾀꼬리 한 마리가 강변으로 날아와 늘어진 버드나무가지에 앉는다

나무 가지가 능청능청 휘어진다

한 마리가 날아와서 조용히 산으로 데려간다